

혁신도시 고용률 올라가니 나주도 '쑥'

나주시 하반기 67.8% 전국 5위...기관 이전 후 10만명 돌파 고용률 연속 상승 전국 평균 웃돌아...지역 의무채용제 한 몫

혁신도시 이전 효과로 지난해 하반기 나주 고용률이 전국 77개 시지역 가운데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3만2000명을 넘기며 목표 인구의 65%를 달성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나주시 고용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 취업자 수는 한국전력 등이 동지를 튼 2014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14년 9만4500명이었던 나주 취업자 수는 이듬해 10만1400명으로 '10만명대'를 돌파했고 11만400명(2016년)→11만

5100명(2017년)→12만1300명(2018년)→12만7600명(2019년)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나주시 고용률 역시 이전을 시작한 2014년부터 6년 동안 전국 평균 고용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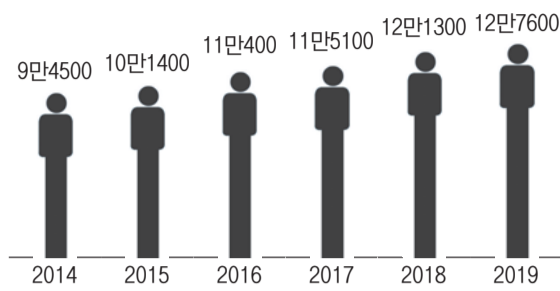
나주시 고용률은 2017년 64.5%, 2018년 65.3%, 2019년 66.9%로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고용률은 이를 못 미치는 2017년 60.8%, 2018년 60.7%, 2019년 60.9%로 집계됐다.

나주시 고용률 상승에는 민간기업 유치 실적도 한 몫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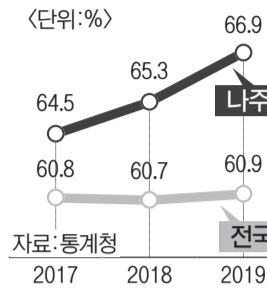
지난해 말까지 나주 혁신도시에는 278개의 민간기업이 입주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사무실 임대료, 부지분양대금, 건축비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에는 3만2478명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는 목표 인구 5

■나주시 취업자 추이



■연도별 고용률 추이



만명의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혁신도시에서 거주 중인 지방세수는 483억원에 달했다.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정주여건을 개선 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현재 유치원 1곳과 민간 대형병원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곳 추가 운영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청년들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 13곳은

3166명을 새로 뽑으면서 이중 17.3%에 해당하는 54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전년 지역인재 비율 15.2%(3181명 중 485명) 보다 오른 수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대전·충청권 광역화를 계기로, 광주·호남권 광역화를 추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나주에는 한전 중심으로 에너지 기관이 집중돼 있어 에너지 분야 전공자 위주로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분야 전공자들도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취업 꿀팁' 유튜브 공개 취업박람회 취소에 2편 제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취업 박람회가 취소·연기되면서 한국전력이 유튜브에 '취업 정보'를 게재했다.

한전은 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취업 꿀팁' 기획영상 '한전 취업!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상은 한전 채용 담당자와 신입사원들이 출연해 질문들에 답을 하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제작됐다.

한전은 지난 달 12·13일 이틀간 한전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아무질문 찰린지'라는 이름으로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받아왔다.

'취업 꿀팁' 영상은 모두 2편으로 만들어졌으며 1편에서는 신입사원들의 취업 준비 과정과 필기시험(NCS) 경험담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 채용 담당자는 자기 소개서 작성법 등을 공개했다.

다음 주 공개할 2편에서는 신입사원들의 생생한 면접 후기와 실제 맡은 업무, 회사 분위기 등을 알려준다.

지난해 한전은 총 1773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올해에도 15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상반기 대졸수준 채용은 3월 말 예정됐지만 한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기관들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해요"



한전KDN은 지난 2일 나주 아동복지시설 등 4곳의 방역 소독을 지원했다.

<한전KDN 제공>

방역 소독·마스크 전달 등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전KDN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일 나주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관 4곳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역 지원활동은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4일

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4개 기관에 전달하고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임직원 헌혈 봉사도 함께 진행했다.

한전KDN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 달부터 한전KDN 구내식당은 지정 휴무제를 확대 운영해 직원들이 나주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5일에는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에 친환경 장바구니 5000개를 지원할 계

획이다. 6일에는 각종 행사 취소·축소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세계 여성의 날'(8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꽃을 나눠줄 계획이다.

박성철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상권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KPS는 일회용 마스크 1만장 과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나주시에 전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콘진원, 콘텐츠 창의인재 교육 운영 기관 모집



지난해 콘진원진흥원이 진행한 '창의인재사업' 성과 발표회.

<콘진원 제공>

콘진원, 12일까지 접수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경준, 이하 콘진원)은 미래 콘텐츠산업 혁신을 이끌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

올해 콘진원은 '창의인재 동반사업',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운영 사업',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을 통해 45개 교육 운영 컨소시엄을 모집할 계획이다.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콘텐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밀착형 도제식 멘토링 교육을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 분야에 특화된 기업·기관·협회·단체·학교 등 법인 이면 플랫폼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총 20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6개 내외의 지역 플랫폼기관을 선정해 지역 인재 발굴과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운영 사업'은 융합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프로젝트 개발과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VR 웹툰, 빅데이터, 미디어아트, 비주얼캐릭터 등 첨단기술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창작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 1000여 명의 창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이중 50% 이상을 지역 소재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할당한다.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은 총 5개 내외의 교육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기업, 기관, 민간단체, 대학 등의 학교 및 부설연구소이다. 선정 기관은 실감콘텐츠 4대 유망 분야인 관광,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교육훈련 분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3월 5일까지,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운영 사업과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은 3월 12일까지 e나라도움에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과 e나라도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업재해 예방 힘쓴다

올 1442억 증가한 4조984억원 주요 사업내용·운용 예산 공개

나주 혁신도시 17개 기관의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2.9% 줄어든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보다 1442억원(3.6%) 증가한 4조984억원을 운용한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사업내용과 예산을 공개했다.

먼저 공사는 농지은행사업에 지난해보다 1800억원 증가된 1조1500억원을 집행한다. 농지은행 사업은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농지매입조건을 크게 개선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5600억원을 투입,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과 2030 세대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재해 예방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전국의 161지구에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을 설치해 고질적인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과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등 4개 지구에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밸리는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스마트팜 대단위 종합 산업단지인 이곳에는 원예단지과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는 전국 9개 지역본부에 'KRC 지역개발센터'를 설치해 지역개발사업을 강화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